2026 NEWS LETTER

THINK ROAD







우리들교회 WOORIDLE CHURCH

2026

NEWS LETTER

THINK ROAD

CONTENTS

005 국내 THINK TRIP _ 목양국

067 국내 THINK TRIP _ SG국

072 국내 THINK TRIP _ 대구채플

074 국내 THINK TRIP _ 광주채플

077 국내 THINK TRIP _ 청년국

103 해외 THINK TRIP

128 대구 THINK 목회세미나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국내 THINK TRIP

목양국

- 거창 가북교회
- 거창 양지교회
- 거창 영락교회
- 경산 늘푸른교회
- 경주 안강영광교회
- 경주 한마음교회
- 고령 평안교회
- 고성 하이교회
- 김천 남산교회
- 남해 상덕교회
- 남해 성남교회
- 남해 양아교회
- 대구 남덕교회
- 대구 선한이웃교회
- 대구 성신교회
- 대구 순복음신동산교회
- 대구 은평교회
- 문경 큰길교회
- 밀양 덕암교회
- 부산 기장새삶교회
- 부산 말씀과은혜교회
- 부산 망미제일교회
- 부산 섬기는사람들교회
- 부산 성도기쁨교회
- 부산 순복음서면교회
- 부산 영도중앙교회
- 부산 은혜로교회
- 부산 진성결교회
- 부산 참마루교회
- 부산 하늘소망교회
- 산청 남사교회
- 산청 새축복교회
- 안동 기산교회
- 안동 삼산교회
- 양산 예수나눔교회
- 양산 웅상중앙교회
- 영덕 도곡교회
- 영주 두월교회
- 영주 소백교회
- 예천 신암교회
- 울산 구영교회
- 울산 농소제일교회
- 울산 예수사랑교회
- 울산 우리교회
- 의령 가례교회
- 의령 덕교교회
- 의령 입산교회
- 의성 탑리장로교회
- 진주 가선교회
- 진주 참빛교회
- 창원 봉림교회
- 창원 진해순복음교회
- 청송 안덕제일교회
- 통영 꿈과사랑의교회
- 통영 한산도 여차중앙교회
- 포항 열방교회
- 포항 영일만교회
- 포항 예수소망교회
- 하동 하동교회
- 합천 평지교회

ADULT FELLOWSHIP

거창 가북교회

- 담임목사 : 문길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3일-15일
- 공 동 체 : 박재수 초원














이번 거창 가북교회 THINK TRIP은 현지 성도님들과의 깊은 영적 교류뿐만 아니라 팀 내부에서도 매일 큐티 나눔을 이어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린 복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예배에는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 평생 처음으로 교회 뜰을 밟으신 어르신들이었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심겨진 은혜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 양지교회

- 담임목사 : 김광섭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임종석 초원













현지 성도님들이 목장 시연에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진솔하게 내어놓으며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백하는 나눔을 들을 수 있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담임목사님께서도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때, 우리가 진행하는 THINK TRIP이 한 영혼을 살리는 차별화된 사역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THINK TRIP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창 영락교회

- 담임목사 : 김대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조병용 초원



















연약함과 죄 고백의 나눔이 약재료가 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 현장 가운데 때마다 우리의 기준을 깨뜨리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계획 덕분에, 팀원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음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섬기러 갔던 저희가 오히려 현지 교회의 정성 어린 섬김과 위로를 받아 영적으로 깊이 회복되었고,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교회에서 9월 큐티인을 직접 구매하여 80여 명의 전 교인이 큐티인으로 큐티를 시작하기로 하셨고, 일반 성도님 여러분께서 대구성명교회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신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성도 50여 분과 함께 부부 · 여성 · 청년 목장을 진행하며 신실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경산 늘푸른교회

- 담임목사 : 박영삼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일-4일
- 공 동 체 : 정의학 초원













늘푸른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큐티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부부목장과 여자목장, 어린이 큐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현지 성도님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나눔을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있는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지역 교회 큐티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주 안강영광교회

- 담임목사 : 황유섭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3일-4일
- 공 동 체 : 이윤배 초원












사역준비에 걱정이 많았지만 안강영광교회 TT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프로그램에 꼭 맞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교회의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고령이셔서 큐티사역이 잘 전해질 수 있을지 걱정을 하였지만 목장시연과 어르신 잔치를 통해 함께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과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고, 이것이야 말로 구속사의 큐티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주 한마음교회

- 담임목사 : 조요한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영중 초원













경주 한마음교회 THINK TRIP 사역이 시작되자 우리의 계획이 아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60대 이상 성도님들이 중심을 이루는 현지 교회에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30여 명의 다음 세대가 뛰어놀며 무더위 속에서도 노방전도에 함께 나서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현지 성도님들께 커다란 기쁨과 도전이 되었고, 현지 교회 성도님들 역시 TT팀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정성 어린 식사로 섬겨주시는 감동을 나누어주셨습니다. 특히 불교 색채가 강한 지역적 특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던 목장 나눔에서는 현지 성도님들과 우리들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깊이 공감하고 체휼하며, 자녀 문제나 우울증 같은 솔직한 삶의 고백을 자유롭게 나누는 기적 같은 한마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나눈 세족식과 함께 현지 담임목사님을 포함한 세 분이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약속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면서, 내 열심과 계획을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령 평안교회

- 담임목사 : 김종섭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3일-5일
- 공 동 체 : 장행구 초원





















현지 교회 사역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미용을 담당하시기로 했던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듣고 기꺼이 자원해 주신 한 권사님을 현장에서 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그 권사님께서는 2015년부터 혈액암과 대장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와중에도, 봉사하러 오시는 길에 터진 코피를 지혈해가며 오셔서 지칠 법한 상황 속에서도 TT팀원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현지 어른신들과 성도님들을 섬기며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TT사역이었습니다.

고성 하이교회

- 담임목사 : 김동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정민영 초원





















THINK TRIP팀원들 각자의 약재료를 가지고 고성지역의 하이교회로 TT를 떠났습니다. 현지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함께 나눌 삶의 고백과 약재료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 사회의 특성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이 우려되어 마음껏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는 현실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기 있게 자신의 솔직한 삶과 아픔을 내어놓으신 성도분들이 계셨고, 그 진솔한 고백을 통해 모인 모두가 가슴 깊은 감동과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천 남산교회

- 담임목사 : 이상직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7일
- 공 동 체 : 이기창 초원



남산교회는 어르신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지켜오신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THINK TRIP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마철 폭염 속에서도 신축 한옥펜션을 온전히 예비해 주셔서 모든 팀원이 한마음으로 예배당과 교육관, 사택까지 새롭게 단장하며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칠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나누었고, 마을 방송을 통해 믿지 않는 주민분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마을 잔치에 참석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전도, 예배, 간증, 찬양, 목장 시연, 미용 · 의료봉사로 섬기는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는 간증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고, 목회에 다시 힘을 얻으셨다며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약속하셨고, 함께한 아침 큐티와 소감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산교회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으며 언제나 100% 옳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귀한 TT였습니다.

남해 상덕교회

- 담임목사 : 김용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이진호 초원















THINK TRIP은 일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년에 은혜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통할까 염려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의 성과를 먼저 생각하며 일에만 몰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그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며 회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염려했던 모든 일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매년 THINK TRIP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속사는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뜻깊은 THINK TRIP이었습니다.

남해 성남교회

- 담임목사 : 박천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남삼희 초원





















남해성남교회 TT팀원들의 간증과 귀한 사역으로, 함께한 현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현지 교회 담임목사님께서는 목장 시연 중 “가족들을 힘들게 한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고, 우리들교회 TT팀의 사역을 통해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다고 전해주셔서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TT였습니다.

남해 양아교회

- 담임목사 : 정연복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박동진 초원












남해 최남단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 해변을 배경으로 사흘간 THINK TRIP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흘에 걸쳐 베드로의 빈 배, 나오미의 텅 빔, 유다의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를 본문으로 한 큐티 나눔을 통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깊은 적용을 나누었고, 참여한 초원 식구들과도 마음을 다해 나눔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을 주민 20여 분이 참석하셔서 밥차를 활용한 점심과 저녁 바비큐 식사, 어르신 노래교실과 만들기로 꾸며진 마을 한마당, 그리고 한방 · 치과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교회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목사님 내외분께서도 마을 모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해 주셨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 예배에서는 간증과 말씀, 뜨거운 기도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삶의 고백으로 은혜를 나누고 양아교회를 마음 모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물질의 고난으로 낙심해 있던 젊은 부부 가정이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자녀들 역시 공동체의 따뜻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복을 얻었으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리적으로는 멀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은혜가 가득했던 남해 THINK TRIP이었습니다.

대구 남덕교회

- 담임목사 : 최원주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8일-10일
- 공 동 체 : 김상건 초원



















대구 남덕교회 THINK TRIP을 가서 매일 아침마다 팀원들과 함께 큐티 나눔과 진솔한 간증을 나누며 사역 현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성도님들과 직접 만나 삶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말씀 묵상 운동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가정 중수 사역이 왜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지를 가슴 깊이 체감한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어질 다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와 열매들을 기쁨과 기도로 기대하게 됩니다.

대구 선한이웃교회

- 담임목사 : 장성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유병철 초원



THINK TRIP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간증 페스티벌 시간을 통해 삶의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회복받았던 은혜를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도 간증 페스티벌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으신 후 용기를 내어 단상에 오르셨고,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을 가식 없이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자리에 모인 성도 모두가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 성신교회

- 담임목사 : 정희석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3일-15일
- 공 동 체 : 김광회 초원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간증, 큐티 예배, 목장 시연, 그리고 즉흥 목장 구성을 통한 삶의 나눔과 정성 어린 마을 잔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눈물로 전해주신 진솔한 소감 발표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준 성도들의 섬김 역시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우리들교회는 단 한 영혼을 위해 5천 명의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고백에 깊이 공감하시며 마을 잔치에 오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깊은 감격을 나누었으며,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신청하시는 기적 같은 결실까지 맺게 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대구 순복음신동산교회

- 담임목사 : 최거룩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박재석 초원





















대구 순복음신동산교회 THINK TRIP를 준비하면서 지역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 삶의 아픔과 고난이라는 약재료를 솔직하게 나눠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속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대구 은평교회

- 담임목사 : 이종길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3일-15일
- 공 동 체 : 서천종 초원












대구 은평교회를 방문하여 예현리 마을 노래자랑 사역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예현리 이장님께서 깊은 은혜를 받아 은평교회에 출석을 등록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은평교회 이종길 목사님께서 대구 지역 인근의 목사님 여덟 분을 초대해 주셔서 진행된 목사 · 사모 목장 나눔과 시연을 통해 다섯 분의 목사님께서 대구 THINK TRIP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결단하셨는데, 이는 이종길 목사님을 주축으로 농촌 교회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목회적 인프라가 든든히 구축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사역 첫날부터 3개 마을별로 전도에 나아가 주민분들을 모시고 노래자랑과 마을 잔치로 기쁘게 섬겼을 때 주민들과 이장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배가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국내 THINK TRIP 사역은 현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혜롭게 준비해야 함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경 큰길교회

- 담임목사 : 최석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18일-20일
- 공 동 체 : 강필구 초원













팀원들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오후까지 전도를 이어가며 저녁 초청 예배에 많은 어르신과 주민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내심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되기도 했으나 교회 보수와 외벽 도색 작업이 마쳐진 오후 5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밭일이나 일을 나갔던 분들이 일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전도로 친밀해진 경로당 어르신 10여 분도 함께하셔서 30여 석의 예배당 자리가 가득 차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 중 팀원들의 간증과 영접 기도가 진행되었고, 예배 후에는 일대일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 복무 중 얻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담임목사님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피아노 연주를 통한 따뜻한 칭찬과 격려로 목사님 내외분과 자녀의 얼굴에 한층 밝은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간 전도를 통해 소중한 영혼들을 만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었고, 참석한 팀원 모두 큰 은혜를 받고 다음에도 꼭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THINK TRIP이었습니다.

밀양 덕암교회

- 담임목사 : 김성권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심경보 초원














밀양의 덕암교회 THINK TRIP 모든 일정과 섬김의 순간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때에 맞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며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한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약재료로 성도님들과 팀원들을 섬기며 함께 울고, 웃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 기장새삶교회

- 담임목사 : 이덕영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장욱 초원













진솔한 간증과 목장 참여를 통해 기장새삶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고,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할 때 지역 주민분들께 활발히 다가설 수 있었으며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팀원들끼리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저녁 피드백,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마치 초원 수련회와도 같은 풍성한 친교와 은혜를 경험하였고, 모든 팀원들이 벌써부터 다음 THINK TRIP에도 기쁨으로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나눠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장새삶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대구성명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시겠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정이었습니다.

부산 말씀과은혜교회

- 담임목사 : 하명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25일-27일
- 공 동 체 : 정희승 초원













말씀과 은혜교회는 개척하진 1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제약과 1가정의 성도님과 목회를 이어나가시며 지쳐계셨습니다. 준비한 여러 행사와 사역도 현지 사정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었고, 노방전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홈커밍데이 잔치에 1명만이라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 2일차 전도를 마치고 홈커밍데이 행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로 작은 예배당에 어르신과 학생 등 60여 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고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까지 함께 드렸으며, 7년 만에 2명이 새롭게 등록하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현지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THINK TRIP 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모든 순간에 옳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망미제일교회

- 담임목사 : 김태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3일-25일
- 공 동 체 : 오재근 초원



도착 첫날은 현지 교회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튿날은 우리들교회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들교회 집사님들께서 목장 시연을 선보인 후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장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교회 목장 모임의 진행 방식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나, 자신의 죄와 고난을 약재료로 진솔하게 나누시는 우리들교회 집사님들의 말씀 중심의 나눔에 깊이 몰입하신 현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집사님들의 간증 페스티벌과 셋째 날 진행된 큐티 나눔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은혜를 고백할 때 성령의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날 나눔 시간에는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목장 공동체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눈물로 소망하셨고, 성도님들 역시 진솔한 죄 고백과 함께 앞으로 목장 참여와 말씀 묵상에 힘쓰겠다는 감격스러운 다짐을 나눠주셨으며, 특히 올 10월 목회자세미나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교회 공동체를 통한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의 은혜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은혜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산 섬기는사람들교회

- 담임목사 : 박동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윤부경 초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도 세속적 복을 축복으로 여기는 토속신앙이 결합된 현장의 메마른 마음밭이 참으로 단단한 가시밭과 같음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고, 특히 다대포 지역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을 불교 재단이 지원하고 있어 기독교가 설자리가 극히 좁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김양재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목회의 현실 속에서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목사님의 고충을 접하며, “리더가 되면 더 큰 고난과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과 같다”는 진솔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모여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며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이번 THINK TRIP 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돌아온 은혜의 일정이었습니다.

부산 성도기쁨교회

- 담임목사 : 임대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7일-19일
- 공 동 체 : 김성철 초원















부산 성도기쁨교회를 포함하여 인접한 총 4개 교회가 함께 모여 큐티 세미나와 목장 시연, 그리고 간증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섬김을 통해 우리들교회 성도님들 역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알아가며, 사역과 믿음의 지경이 한층 넓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부산 순복음서면교회

- 담임목사 : 김효선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유상대 초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팀원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충성된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으며, 순복음서면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들교회의 부부목장과 여자목장에 함께 참여하여 삶을 나누고 중보하는 가운데 마치 한 가족이 된 듯한 깊은 연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큐티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며, 그동안 말씀과 큐티를 더 온전히 사모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회개와 함께 앞으로 더욱 말씀에 전념하여 주위에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하게 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중앙교회

- 담임목사 : 김세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박성민 초원











부산 영도중앙교회 THINK TRIP 현장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적으로 섬겨준 지체들을 통해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모임 때의 모습과는 완연히 달라진 은혜로운 표정들, 목장 시연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보게 된 남편들, 진솔한 간증을 통해 부부간의 화해를 이룬 가정들, 그리고 기꺼이 물질과 정성으로 섬김을 다한 지체들로 인해 현장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영도중앙교회 성도님들 역시 THINK TRIP 모든 일정에 함께해 주시며 깊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셨고, 마지막 사랑의 띠를 잇는 순간까지 저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시간이 감격과 은혜 그 자체였던 THINK TRIP이었습니다.

부산 은혜로교회

- 담임목사 : 조경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시태 초원













THINK TRIP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명자들이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은혜로교회에 모여 조경연 목사님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은혜의 소그룹 목욕탕 나눔을 하였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팔도시장과 사적공원을 누비며 한 영혼을 위한 노방전도와 기도를 이어갔으며, 저녁 만찬과 저녁 집회,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 페스티벌, 목장 시연, 벌떼기도 등을 통해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귀한 섬김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지만 충성되게 섬기시는 은혜로교회가 이번 말씀 묵상 운동의 첫 출발을 계기로 이 지역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살려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낼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합니다.

부산 진성결교회

- 담임목사 : 백혜명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강태도 초원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팀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장시연과 간증을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해주셔서, 함께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와 환경, 모든 처소까지 세세히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산 참마루교회

- 담임목사 : 이상곤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진교승 초원














THINK TRIP을 통해 각자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고, 각자의 삶에서 얻은 고난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참마루교회 성도님들과 간증과 삶을 나누며 함께 은혜받는 귀한 THINK TRIP 사역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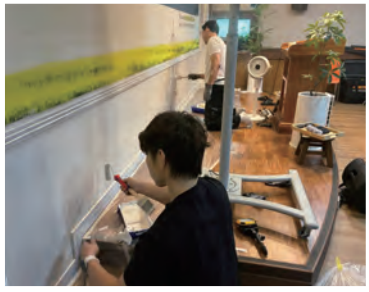
부산 하늘소망교회

- 담임목사 : 박상윤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정상기 초원













부산 하늘소망교회 THINK TRIP 팀원들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간절히 중보하며 매일 밤 9시마다 THINK TRIP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출석 성도가 적어 피곤하고 지쳐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과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확인하고 깊이 체감할 수 있었으며, 함께 울고 웃는 진솔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팀원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청 남사교회

- 담임목사 : 김영범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3일-15일
- 공 동 체 : 배한얼 초원























THINK TRIP을 통해 남사교회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현지의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가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였고, 특히 사모님께서 눈물로 나누어 주신 삶과 사역의 진솔한 고백은 마음에 커다란 울림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여건상 참석이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리더분들과 함께 대구성명교회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담대히 결단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한 모든 팀원들의 모습 또한 깊은 감동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은혜와 영적 회복이 차고 넘친 복된 THINK TRIP이었습니다.

산청 새축복교회

- 담임목사 : 백현종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3일-25일
- 공 동 체 : 안효빈 초원













29년간 충성되게 시골 교회를 섬기시며 70세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새축복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모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10여 명 남짓한 어르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현장에서 저희 팀의 식사 섬김과 말씀 묵상 세미나, 그리고 노방전도를 통해 목사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남은 사역의 길을 기쁨으로 불태우시겠다는 귀한 결단을 나눠주셔서 팀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섬김을 통해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성도님께서 주일 예배에 다시 참석하셨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기쁨으로 내년 THINK TRIP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동 기산교회

- 담임목사 : 이경세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30일-8월 1일
- 공 동 체 : 한은택 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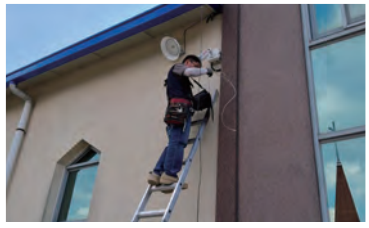













올 여름 기산교회 THINK TRIP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면, 먼저 간증과 목장 시연에서 팀원들이 보여준 진솔한 나눔에 현지 성도님들이 깊이 공감하며 목장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큐티와 목장을 통해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훈련된 우리들 공동체의 삶이 기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 각자가 신혼부부의 간증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목장 시연 인도, 무더위 속에서 50여 명의 마을 어르신들을 정성껏 대접한 식사 봉사, 사전 작업 끝에 완공한 교회 보안카메라 설치 헌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섬김을 다해 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큰 고마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삼일간 이어진 진심 어린 섬김에 감동하신 현지 담임목사님께서 대구성명교회 목회자세미나 등록을 결정하시며 우리들교회 목회를 긍정적으로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팀원들 역시 매일 새벽 큐티와 저녁 기도회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처음 참석한 지체들까지 내년 사역을 기약할 만큼 깊은 의미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거룩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안동 삼산교회

- 담임목사 : 김종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25일-27일
- 공 동 체 : 이학준 초원



안동 삼산교회 TT를 준비하면서 모든 진행 과정이나 계획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다시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받는 귀한 THINK TRIP이 되었습니다.

양산 예수나눔교회

- 담임목사 : 이요한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박종혁 초원














사전 준비모임을 통해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큐티나눔과 중보기도로 THINK TRIP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각자가 맡은 사역에서 희생과 봉사, 솔선수범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큐티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구속사의 은혜를 전하고, 현지 이주민분들에게도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산 웅상중앙교회

- 담임목사 : 손형설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3일-25일
- 공 동 체 : 이찬희 초원











웅상중앙교회는 이미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을 이어오고 계셨던 교회로, 이번 일정에서는 큐티의 바른 구체화 방법 전달, 우리들교회 목장 5개와 웅상중앙교회 목장 5개의 연합 목장 시연,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등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참으로 뜨거웠으며, 특히 이전부터 큐티를 해오셨음에도 "적용 질문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임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해 주실 만큼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주셔서 한층 더 보람되고 은혜로운 THINK TRIP이었습니다.

영덕 도곡교회

- 담임목사 : 이정희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8일-10일
- 공 동 체 : 정영식 초원



















도곡교회 TT를 통해서 각자의 자기 자리를 지킨 팀원들이 은혜로 살아나며 샬롬을 선물로 받은 THINK TRIP이었습니다.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 23명의 어르신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접기도를 따라하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명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목사님께서도 목장나눔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셨고, 셋째 날 폐회예배를 통해서는 모든 팀원이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정희 담임목사님께서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과 큐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해 주신 것이 떠나는 팀원들에게 큰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며, 말씀묵상과 공동체가 영혼 구원을 위한 확실한 대안임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주 두월교회

- 담임목사 : 이봉미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9일-11일
- 공 동 체 : 양재호 초원



초원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시설보수팀, 의료전도팀, 찬양팀, 마을잔치팀, 식사팀, 키즈팀, 레크리에이션팀, 미디어팀 등 각각 팀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고, 리얼 간증과 목장 시연으로 깊은 은혜를 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사역의 자리를 지켜오신 두월교회 이봉미 담임목사님과 남편 장로님께서 저녁 예배에 현지인 35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며 사역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하셔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 속에서 두월교회가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주 소백교회

- 담임목사 : 김현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9일-31일
- 공 동 체 : 김인종 초원












이번 영주 소백교회 THINK TRIP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의 약재료로 사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한번 깨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주관해 주심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천 신암교회

- 담임목사 : 윤은순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안광식 초원













어르신 성도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계신 조용하고 아담한 시골 마을에서 온 정성으로 준비한 사역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간증과 목장 시연을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7개월가량 되신 현지 교회 사역자님께서는 평소 출석 교인이 10여 명 남짓한 작은 교회에 이토록 많은 분이 함께 모인 적이 없었다며 이번 THINK TRIP을 통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고 앞으로 교회에 말씀 묵상 사역을 차근차근 접목해 가겠다는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면 어르신들의 이동이 어렵고, 한방 마사지 등의 봉사와 마을 잔치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무 덥지 않게 햇볕을 가려주시고, 모든 일정이 완벽히 마무리된 직후에 폭우를 내려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구영교회

- 담임목사 : 황태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3일-15일
- 공 동 체 : 김영환 초원















THINK TRIP을 준비하며 깊은 아픔을 통과하신 현지교회 담임목사님께 큐티 목회라는 결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리고 성도님들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부부 목장, 여자 목장을 진행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에 갈급하고 영적 공동체를 절실히 열망하는 구영교회 성도님들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 오히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구영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울산 농소제일교회

- 담임목사 : 권구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15일-17일
- 공 동 체 : 김종문 초원





















울산 농소제일교회 THINK TRIP 사역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매주 사전 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대함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도착해 반갑게 맞아주시는 장로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기쁨으로 인사를 건네며 반가운 교제를 나누었고, 담임목사님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식자재 · 인테리어 · 찬양 · 노방전도 · 안전관리 및 청소 등 각자의 은사대로 섬긴 팀원들의 모습은 마치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확답해 주셨고, 소식을 들은 팀원들의 환호에 목사님께서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큰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지 50여 일 만에 참석한 부부 성도의 간증에 장로님께서 깊은 위로와 도전을 받으셨으며, 화장실을 선뜻 내어준 주변 상가 이웃들의 협조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로 나눈 은혜의 고백, 그리고 내년 THINK TRIP을 기약하는 결단에 이르기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울산 예수사랑교회

- 담임목사 : 이미랑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민수 초원













울산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님께서는 우리들교회 목회자세미나에도 참석하시고,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며 5개의 목장을 만들어 섬기고 계셨습니다. TT에 참석한 모든 팀원들의 섬김덕분에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큐티세미나와 7개의 목장으로 나누어 진행된 목장 시연, 그리고 우리들교회 간증 페스티벌을 통해 울산예수교회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삶에서의 진정한 나눔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셨으며, 진행하는 저희 또한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울산 우리교회

- 담임목사 : 김영익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김한호 초원



2026년 여름, 우리들교회 성도들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겔 47:12)” 하신 말씀을 품고 경상남도 울산우리교회를 찾아가 김영익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삶의 고백이 담긴 간증의 약재료를 나누는 은혜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THINK TRIP 기간 동안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라는 주제 아래 신명기 4장 29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초기에는 출석 성도 5명 내외의 작은 교회를 세우고자 프로그램 중심의 행사에 집중하시며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조차 주저하시던 목사님과 깊은 상처의 아픔을 나누시면서도 구속사적 큐티 사역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현지 상황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30일 차 신혼부부의 갈등 나눔부터 35년 차 부부의 진솔한 대화, 외도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등록한 지 한 주 만에 오신 부부의 고백,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과 목자 치리를 깊이 회개하며 밑동 잘린 나무와 같음을 고백한 집사님의 나눔과 목회자의 가정 갈등을 솔직히 전한 목사님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저희 THINK TRIP 팀이 여전한 방식으로 부끄러운 약재료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증 집회 마지막 순간 기적 같은 역사로 울산우리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난 받는 현지 성도님들이 우리들 공동체의 고백을 들으며 말씀으로 살아나고자 함을 보시고 다음 주부터 전 교인이 큐티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시며 THINK TRIP 팀에게 감사의 큰절로 대구 목회자세미나 참석을 기쁨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전 “된다, 된다, 다 된다, 큐티!”를 함께 외치며 사역을 마친 이번 THINK TRIP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며, 울산우리교회가 큐티 목회로 바로 서서 울산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도피성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령 가례교회

- 담임목사 : 윤석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3일-25일
- 공 동 체 : 권오성 초원





















사역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던 마을 주민분들의 모습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으나, 마을 잔치에서 공연팀이 자신을 낮추며 웃음을 선사하고 어린이들의 진심 어린 공연으로 주민분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울리면서 굳어 있던 마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이 이어져 저녁 예배에 20명이 넘는 주민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오시는 참된 은혜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고, 현장을 직접 경험한 모든 THINK TRIP 팀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벌써부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내년 THINK TRIP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의령 덕교교회

- 담임목사 : 한정표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30일-8월 1일
- 공 동 체 : 조은형 초원











출석 성도가 10여 명 남짓이고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 성도분들로 이루어진 덕교교회의 현황을 접하며, 현지 목사님께서도 "어르신들께서 한 시간 이상 앉아 계시기도 어렵고 한자리에 모시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셔서 '과연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고민을 안고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으나, 저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참석이 어려웠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웃 교회의 젊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특강과 덕교교회 주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섬김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는 인근 세 교회의 목사님 내외분들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 집회와 목장 시연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덕교교회 목사님 내외분과 권사님을 포함한 네 분이 대구 목회자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복된 결실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의령 입산교회

- 담임목사 : 소병룡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3일-5일
- 공 동 체 : 황승연 초원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출석 성도 수의 두 배에 달하는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시는 은혜가 임했으며 THINK TRIP 일정 내내 가득했던 은혜와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임을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즐거움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는 커다란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린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의성 탑리장로교회

- 담임목사 : 오덕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권덕주 초원












의성 탑리장로교회 THINK TRIP을 통해서 각자의 고난의 약재료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지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주 가선교회

- 담임목사 : 김민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4일
- 공 동 체 : 김낙흥 초원














자녀 세대가 떠나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가선교회를 중심으로 연합 예배와 말씀 간증, 시설 보수 및 미용 봉사, 마을 전도와 잔치, 그리고 목장 나눔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세밀하신 예비하심 속에서 사역을 기쁨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충성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드린 연합예배에서 구속사의 말씀과 삶이 담긴 간증을 접한 성도님들이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회개의 눈물을 진솔하게 나누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섬겨준 THINK TRIP 팀원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참빛교회

- 담임목사 : 김률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권영민 초원












진주 참빛교회 담임목사님께서는 이미 우리들교회 목회자세미나에 3회 참석하시고, 이번 대구세미나도 참석하셨습니다. 전 교인이 큐티인으로 큐티를하고 적용하며 목장 운영을 시작하셨고,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참빛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목장 시연을 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원 봉림교회

- 담임목사 : 최솔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박성원 초원













봉림교회는 목회자세미나 참석 후 큐티 목회를 시작하신 교회로, 성도 40여 분이 함께 예배드리며 현재 창세기 강해 설교로 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목회 방식의 변화와 함께 실제 성도 수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눔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분들이 계셔서 큐티 나눔과 목장 정착이 주요 기도 제목이었고, 이번 THINK TRIP이 그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목장, 부부목장, 그리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양육을 차근차근 받으신 여자 집사님들이 든든한 그루터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교회의 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세대 어린이가 3~4명 정도라 취학부 부흥이 간절했는데, 이웃 교회인 서진교회와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부목장 역시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열린 성도님들과 깊은 나눔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교회들이 모여 연합으로 큐티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삼겹줄로 큐티 사역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THINK TRIP의 섬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지만 더 작은 교회를 섬기는 THINK TRIP으로 나아가고자 기도하시는 모습에서'강에서 바다로'향하는 큐티 공동체의 진정한 힘과 비전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 진해순복음교회

- 담임목사 : 용성중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안용한 초원





















이번 THINK TRIP에서 진행된 목장 시연과 현지 성도분들과 함께한 조별 나눔을 통해 큰 도전을 받은 진해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THINK TRIP 이후 주일부터 교회 분위기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있다는 감사의 피드백을 전해주셨습니다. 큐티인을 사용하시는 교회인 만큼, 말씀 묵상과 죄 고백 나눔의 동일한 은혜가 진해 땅에도 진해순복음교회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청송 안덕제일교회

- 담임목사 : 조기룡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신 초원












이번 THINK TRIP은 모든 팀원들이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 마치 초원수련회처럼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장에 출석하지 못했던 목원들도 구원과 회복을 위해 정성껏 초대하여 2~3가정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시며 “가족들과 참으로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목장예배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시겠다는 반가운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지 교회에서는 사흘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11개 목장으로 나뉘어 은혜로운 목장예배를 드렸으며, 여자 구역장님 등 리더분들은 별도로 목장을 구성하여 한 번 더 깊은 나눔의 예배를 진행하였고, 담임목사님께서 암 투병 중이신 중에도 사모님과 부목사님 내외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온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피드백 시간에는 THINK TRIP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감격스러운 간증이 이어져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영 꿈과사랑의교회

- 담임목사 : 김영광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월 8일
- 공 동 체 : 조권 초원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으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함께 예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든 순간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미리 신실하게 예비하셨음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과 정성으로 섬기는 현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의 신앙과 섬김의 자리를 겸손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음과 은혜를 전하러 나아갔으나, 하나님께서는 통영 땅의 섬김을 통해 오히려 저희에게 비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THINK TRIP을 통한 만남이 단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마음 깊이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신앙의 유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통영 한산도 여차중앙교회

- 담임목사 : 김윤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9일-11일
- 공 동 체 : 권봉오 초원











배를 타고 30분 정도를 이동하여 한산도섬의 여차중앙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모든 팀원이 교회 주변 마을 곳곳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였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녁예배에 오셔서 은혜받으시고, 2명의 어르신께서 영접기도까지 하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마을잔치 후에는 10여 명의 동네 주민이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내년에도 TT 사역에 꼭 참석하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항 열방교회

- 담임목사 : 설정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7일-19일
- 공 동 체 : 김동호 초원





















포항 열방교회에서 룻기 1장 본문 설교와 나눔 질문으로 진행된 목장 시연, 간증 페스티벌, 두 차례의 노방전도 등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노방전도 시 집에서는 문제로만 보였던 어린 자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문제 부모였다"고 회개하는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고, 마지막 날 마무리 시간에 현지 성도분들이 한 분씩 나와 소감을 나누실 때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전날까지도 사흘 내내 비 소식이 있었으나 우산을 펼 일이 없을 만큼 선선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석해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웃 교회(기쁨의교회)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배려해 주시고 전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해 준 청년들 덕분에 부모님들이 예년과 달리 온전히 THINK TRIP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모든 여건을 차질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포항 영일만교회

- 담임목사 : 김용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유재권 초원













포항 영일만교회를 방문한 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진솔한 죄 고백을 나누어 주셔서 현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각자의 삶을 나누게 되었고, 나눔 이후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며 다시한번 THINK TRIP 사역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포항 예수소망교회

- 담임목사 : 김영길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6일-8일
- 공 동 체 : 정상호 초원














포항 예수소망교회는 11년 전부터 미혼모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이어온 교회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 경직되어 있던 미혼모 성도분들의 아픔을 안고 시작된 사역 첫날, 룻기 말씀에 이어 7개 목장 나눔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는데, 마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멈출 줄 모르는 눈물과 진솔한 고백이 이어지며 “내일은 목장이 또 없나요?”라는 질문 속에 매마른 땅 같던 마음이 생수로 채워져 상기된 성도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100%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일 속에 상처로 주저하던 미혼모분들이 둘째 날 자진하여 참석해 공동체를 놀라게 했고, 성폭행의 상처를 품고 있던 한 성도님은 “바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라며 자신도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 받고 싶다고 밝게 고백하였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에 성도님들 모두가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속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THINK TRIP이었습니다.

하동 하동교회

- 담임목사 : 김종덕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김주영 초원















하동교회 THINK TRIP를 진행하며, 조별로 함께 모여 부부목장 시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첫날 말씀 묵상 소개를 시작으로 둘째 날 간증 페스티벌, 그리고 영정사진 촬영 등, 온 정성을 다한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성도님들의 반응과 호응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모든 팀원들과 하동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복되고 성대한 은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합천 평지교회

- 담임목사 : 정중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3일-25일
- 공 동 체 : 심주용 초원















의료팀장님께서 마을마다 찾아가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정성껏 점검하고, 청진기 진찰과 함께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붙여드리며 건강 영양제 제공 및 15분간의 유익한 건강관리 특강으로 마음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평소 출석 성도님이 10여 명 남짓한 아담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청춘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마을 어르신들이 무려 62명이나 기쁨으로 참석해 주셔서, 온 정성으로 섬기고자 찾아간 저희 팀원들이 오히려 비할 데 없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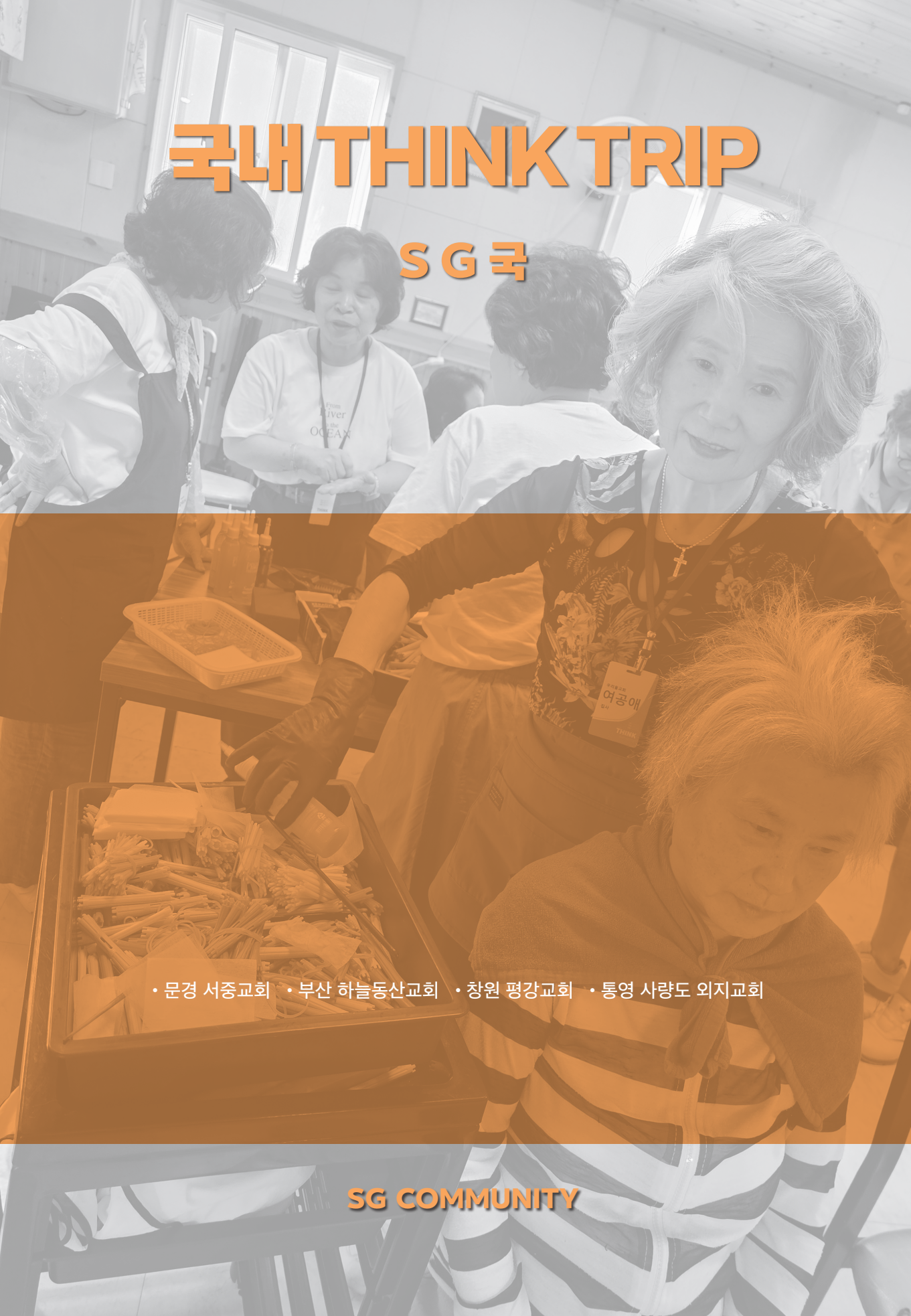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국내 THINK TRIP

SG국

• 문경 서중교회 • 부산 하늘동산교회 • 창원 평강교회 • 통영 사량도 외지교회

SG COMMUNITY

문경 서중교회

- 담임목사 : 남동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15일-17일
- 공 동 체 : 판교 SG 공동체













문경의 서중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 진행된 목장 시연과 간증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들교회 성도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THINK TRIP 사역이었습니다.

부산 하늘동산교회

- 담임목사 : 최낙식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4일-6일
- 공 동 체 : 휘문 SG공동체





















하늘동산교회 교인들 중에 위기의 한 가정이 우리들교회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 각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가정을 중수하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THINK TRIP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원 평강교회

- 담임목사 : 전재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15일-17일
- 공 동 체 : 휘문 SG공동체





















40여명이 함께 창원 평강교회로 THINK TRIP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주변 마을의 집집마다 방문하여 간식과 전도지를 전하였고, 마을 어르신들 초정하여 미용과 마사지, 마을잔치를 하였습니다. 마을잔치에서 1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우리들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목장시연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한 창원 THINK TRIP에서 우리들교회 지체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통영 사량도 외지교회

- 담임목사 : 류동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6월 29일-7월 2일
- 공 동 체 : 판교 SG 공동체













배를 타고 도착한 어촌마을 사량도 외지교회에서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는 어르신들과 은혜로운 THINK TRIP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목장 시연 중에는 재혼을 3번 하신 집사님께서 재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에게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모두 폭소를 터트리고 눈물과 웃음과 은혜가 넘치는 선교사역이었습니다.

국내 THINK TRIP

대구채플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 통영 비전교회

DAEGU CHAPEL

통영 비전교회

- 담임목사 : 이규열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1일-23일
- 공 동 체 : 대구채플



















솔직하고 진솔한 각자의 간증을 나누며 팀원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방면으로 섬길 수 있는 숨은 인재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귀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신 통영비전교회 목사님께서 대구 목회자세미나에도 기쁨으로 오셔서 모두가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렸으며, 택시기사 초청잔치를 통해 수십 명의 기사님들께서 초대에 응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THINK TRIP

광주채플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 양산 베들레헴교회

GWANGJU CHAPEL

양산 베들레헴교회

- 담임목사 : 이준호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6일-18일
- 공 동 체 : 광주채플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나눔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며 큐티 목회와 말씀 묵상, 그리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곳 대안학교 사역을 섬기시는 사역자님 부부께서 함께한 목장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눈물로 진솔한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한 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THINK TRIP으로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사역지에서도 빛지고 원통하며 환난당한 그 한 영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 깊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국내 THINK TRIP

청년국



- 김천 황항교회
- 남해 미조중앙교회
- 부산 반송방주교회
- 부산 성령충만교회
- 상주 화동교회
- 안동 한사랑교회
- 영주 내림교회
- 영주 풍기제일교회
- 울진 구산중앙교회
- 울진 백암온천교회
- 울진 후포제일교회
- 증평 한밭교회
- 통영 물댄동산교회
- 포항 주님을사랑하는교회
- 하동 금성성안교회
- 제주 관광대학교
- 제주 등대교회
- 제주 무릉교회
- 제주 세화성은교회
- 제주 우도교회
- 제주 월정교회
- 제주 임마누엘교회
- 제주 충만한교회
- 제주큐페(청소년)

YOUTH

김천 황항교회

- 담임목사 : 이선규 담임목사
- 활동기간 :8월 19일-22일













THINK TRIP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로 도우시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모든 상황과 세밀한 부분까지 친히 조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역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며,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해 미조중앙교회

- 담임목사 : 김병찬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현지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장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과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기에 주님께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지혜와 방법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팀원 모두가 다른 팀의 일까지 제 일처럼 여기며 마음 모아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복된 THINK TRIP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친히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산 반송방주교회

- 담임목사 : 오갑연 담임목사
- 활동기간 :8월 27-29일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반송방주교회 목사님의 신실한 목양을 보게 하셨고, 노년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참된 상급으로 여기며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 큰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넘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성령충만교회

- 담임목사 : 진석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5일-8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온 공동체가 깊이 경험하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더 멋진 사역과 찬양,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의 열매로 완벽하게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특히 사역의 과정 속에서 팀원 각자의 지나온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사건들마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약재료였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평안함 속에 안주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100%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부르심에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 되어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며, 최선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며 모든 팀원이 큰 위로와 회복을 누린 은혜로운 THINK TRIP이었기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주 화동교회

- 담임목사 : 조영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9일-8월 1일

















상주 화동교회 THINK TRIP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혼자만의 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지체들과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안동 한사랑교회

- 담임목사 : 백인철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첩첩산중 굽이진 길을 지나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보석 같은 세 자녀의 아름다운 가정을 마주하며 사역의 첫 순간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담임목사님 가정과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저희에게 먼저 따뜻한 선의를 베풀어 주셨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겸손함으로 마음을 쓰시며 매 순간 "고맙습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도리어 목사님과 주민분들의 따뜻한 섬김과 깊은 사랑을 가득 받고 돌아오게 되었으며, 소외된 곳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직 감사만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영주 내림교회

- 담임목사 : 이용수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5일-8일












청년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시는 내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농활과 교회 보수 작업을 통해 교회의 오랜 고민거리들을 함께 해결하며 기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뵙게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드린 첫 목장예배에서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나눔과 진심 어린 기도 속에 담긴 말씀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금요일 마을잔치에서는 평소 교회를 찾지 않던 세 분의 주민께서 발걸음하여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마음을 모아 섬긴 모든 순간마다 예배와 목장,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주 풍기제일교회

- 담임목사 : 강승현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8일










영주 풍기제일교회에 도착하여 교회 주변지역 아이들에게 정성 어린 선물을 나누며 다음날 열릴 미니 큐티 페스티벌로 초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노방전도에 나섰기에 마음 한편에 다소 생소함도 있었으나, 감사하게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어 사역의 깊은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성경 퀴즈를 함께 풀고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는 과정 속에서, 비록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고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순간에 기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 역시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로 주님의 공동체에 초대되어 이 복된 순간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삶의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은혜임을 가슴 깊이 고백하게 된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울진 구산중앙교회

- 담임목사 : 전상일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울진 구산중앙교회에 도착하여 수요예배때에 간증을 통해 마음이 열린 주민분께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어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심을 보며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구산 지역 영혼 구원을 향한 현지 교회 목사님의 뜨거운 사명감과 섬기시는 모습을 접하며 청년들 역시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마음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게 하시고, 무탈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울진 백암온천교회

- 담임목사 : 이기택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5일-8일





















다음 세대를 위한 큐페와 현지 성도님들을 위한 목장 시연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누려왔던 모든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영적 환경 이면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흘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 그리고 묵묵한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층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온 수많은 손길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섬김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새로이 되찾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마음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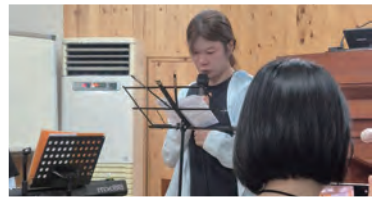
울진 후포제일교회

- 담임목사 : 장준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5일-8일











태풍으로 기존에 가기로 한 THINK TRIP 취소 소식을 접하며 본부와 팀원 모두 아쉬움이 컸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후포제일교회로 장소가 확정되었고, 사역과 일정 등 준비했던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THINK TRIP사역을 통해 우리들교회를 모르시던 현지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신청하셨고, 새로 시작된 후포제일교회 사역 현장으로 다섯 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자발적으로 노방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직접 찍은 사진과 선물을 전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하나 됨을 깊이 경험하게 하셨고,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증평 한밭교회

- 담임목사 : 문은균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5일-8일



















증평 한밭교회 군선교 THINK TRIP을 통해 참여한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쁜마음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고난의 사건들을 구속사의 거룩한 약재료로 재해석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떠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하는 복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통영 물댄동산교회

- 담임목사 : 문성훈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9일-8월 1일
















통영 물댄동산교회 THINK TRIP을 통해 찾아간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연약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마주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모든 사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 현장을 지켜오며 지쳐 계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집회를 열고, 진솔한 간증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회복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전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 주님을사랑하는교회

- 담임목사 : 김명숙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8일












포항 주님을사랑하는교회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이 찾아와 간식을 나누고 함께 놀며 교제하는 '사랑의 공부방' 사역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에 도착한 THINK TRIP 팀원 모두는 아이들과 마음껏 어울리며 깊은 나눔을 가졌고, 사역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며 다음 사역을 기대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공부방'을 충성되이 섬겨온 목사님의 두 딸과 함께 큐티에 대한 진솔한 질문과 삶을 나누며 서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렸고, 팀원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사역을 마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 금성성안교회

- 담임목사 : 이정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9일-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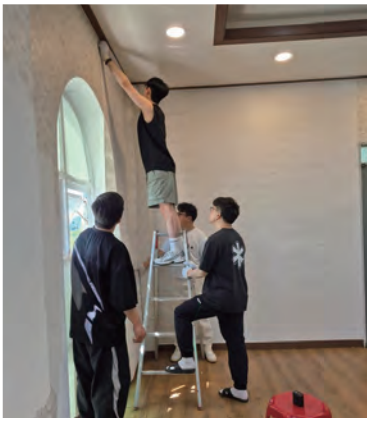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나아가라 명령하시며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이 임한 날 THINK TRIP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갔을 때, 어느새 심령 안에 자리하던 각자의 '모압'이 무너지고 거룩한 사명이 굳건히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던 도배 작업부터 청소년들과의 진솔한 교제, 목사님 가정 및 성도님들과의 나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만 알고 내 가정만 바라보던 영적 지경이 전도와 사명을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 또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도록 다듬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 관광대학교

- 담임목사 : 이정욱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네팔 유학생들과 청년 교류 활동으로 함께하며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돌아온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과 몸짓으로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식사를 나누며 보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믿으며,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섬긴 팀원들과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셨음에 더할 나위 없는 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주 등대교회

- 담임목사 : 임병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8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서 팀원들과 진솔하게 삶을 나누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 현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어르신 사역에서는 평소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던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을 위해 온 팀원이 한마음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등대교회 성도분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수요예배를 드리며 간증과 설교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노인 사역 현장에서는 성도분들 외에 새로 오신 어르신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에어컨이 없는 주방에서도 기꺼이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든 귀한 섬김의 시간이었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무릉교회

- 담임목사 : 문태국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지만 제주 무릉교회 THINK TRIP의 모든 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내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사역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주 세화성은교회

- 담임목사 : 정문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9일-8월 1일





















세화성은교회 TT를 섬기는 여러 팀원들이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사역 현장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THINK TRIP에 처음 참석하는 팀원들이 많았음에도,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우도교회

- 담임목사 : 권태일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8일

















서로 서로 불평 없이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과 사랑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순서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올려드린 찬양의 자리와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눈 목장 시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였고, 무엇보다 사역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돌아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까지도 구속사의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팀원들과 동역하며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백의 깊이를 더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주 월정교회

- 담임목사 : 홍성용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15일-18일














월정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분들과 함께 드린 수요예배에서 팀원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간증과 선물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월정 지역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영접기도와 삶의 나눔을 진행하였고, 마침 사역 당일이 마을 잔칫날이어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인사하며 기쁨을 나눴는데, 어르신들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기도의 현장을 통해 오히려 섬기는 팀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정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다 함께 물놀이와 나눔을 진행한 뒤, 저녁에는 찬양 집회와 기도회로 모여 아이들을 향한 간절한 '벌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영적 감격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준비 모임부터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마치게 하신 이 모든 THINK TRIP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주 임마누엘교회

- 담임목사 : 이경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모든 팀원이 각자의 맡은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경험한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팀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현지 교회와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겼던 귀한 시간들을 통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주 충만한교회

- 담임목사 : 정회룡 담임목사
- 활동기간 : 7월 22일-25일















제주 충만한교회 THINK TRIP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세심하게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가슴 깊이 체감할 수 있어서 큰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큐페(청소년)

- 담임목사 : 이경우 담임목사
- 활동기간 : 8월 3일-7일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큐티페스티벌을 열어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받는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깨닫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NEWS LETTER

2026 THINK ROAD

WOORIDLE



해외 THINK TRIP

- 호주(케언즈)
- 필리핀(다바오)
- 코스타리카
- 르완다
- 키르기즈스탄
- 인도(뉴델리)
- 태국(핫야이)
- 일본 큐페
- 필리핀(세부)
- 과테말라
- 영국
- 케냐
- 그리스
- 호주(브리즈번)
- 일본(교토)
- 필리핀(세부)
- 필리핀(보홀)
- 일본(사이타마시)
- 일본(도쿄)
- 인도(푸네)
- 베트남(하노이)
- 튀르키예 큐페
- 탄자니아
- 일본(지바시)

ALL TOGETHER

| 2025년 3차 |

호주(케언즈)

- 선 교 사 : 에드워드킴
- 활동기간 : 9월 15일-24일















호주 케언즈에서 원주민 요양원 사역과 전도사역, 버스킹사역, 현지교회 사역을 통해 모든 팀원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케언즈 선교관을 운영중인 에드워드 선교사님은 이번 선교팀이 정말 특별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지 크로스컬쳐교회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 THINK TRIP팀의 간증과 큐티사역을 보시고 나서 복음의 열정을 배우길 원한다고 하실 정도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필리핀(다바오)

- 선 교 사 : 배재용
- 활동기간 : 9월 29일-10월 4일












필리핀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초청하여 식사대접을 하고, 예배와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학교 도서관 사역을 활용하여 성경공부도 하고,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THINK TRIP 사역이었습니다.

| 2025년 3차 |

코스타리카

- 선 교 사 : 윤익수
- 활동기간 : 9월 29일-10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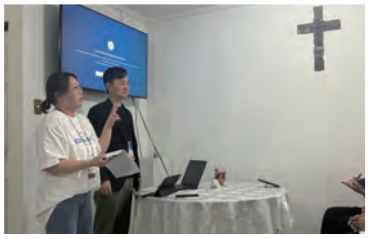














코스타리카 사역 22년 만에 한국에서 오는 첫 단기 선교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격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여 현지의 10개교회를 방문하여 큐티세미나와 간증집회를 하였고, 중남미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통해 큐티 말씀과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교회 큐티사역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선교사님께서는 큐티사역을 코스타리카에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THINK 목회세미나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르완다

- 선 교 사 : U선교사
- 활동기간 : 9월 29일-10월 7일













르완다의 U선교사님께서는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고, 현지 목회자분들과도 큐티인으로 나눔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큐티인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TT팀원들의 간증과 귀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 현지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고,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2025년 3차 |

키르기즈스탄

- 선 교 사 : H선교사
- 활동기간 : 10월 4일~11일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큐티인 말씀을 나누고, 현지 성도님과 아이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으로 황무지 같은 땅에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인도(뉴델리)

- 선 교 사 : C선교사
- 활동기간 : 11월 3일-11일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들교회 THINK TRIP팀의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팀원들이 자신의 아픔들을 진솔하게 나눠주고, 세미나에 참석한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인도 땅에도 구속사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큐티운동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5년 3차 |

태국(핫야이)

- 선 교 사 : 길호만
- 활동기간 : 12월 9일~17일














태국 TT팀이 방문하기전에 큰 수해를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지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들교회 THINK TRIP팀이 오셔서 수해를 당한 현지 성도님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와 간증과 찬양으로 큐티 말씀을 나누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2026년 1차 |

일본 큐페

- 선 교 사 : 선교사대회
- 활동기간 : 26년 1월 5일~7일





















일본 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과 함께 은혜로운 큐티페스티벌 사역을 하였습니다. MK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들도 서로 나누고, 각자의 약재료로 함께 울고 웃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취학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나눔을 눈물로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 2026년 1차 |

필리핀(세부)

- 선 교 사 : 이희석
- 활동기간 : 26년 2월 9~14일













선교사님께서는 필리핀 빈민가를 중심으로 매년 1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지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맡기는 것을 비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SG공동체 팀원들 모두 가는 곳곳마다 기쁨으로 사역을 섬겨주었고, 현지의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과테말라

- 선 교 사 : 최민기
- 활동기간 : 26년 2월 9일~18일



과테말라의 현지 목회자 큐티세미나와 오지교회의 어린이사역, 노방전도, 현지교회 방문 등 여러 사역들을 통해 큐티 말씀을 전하고, 구속사의 복음 전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큐티사역에 관심이 많으셨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는 사역을 중심으로 과테말라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약재료로 간증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 2026년 1차 |

영국

- 선 교 사 : 임재섭
- 활동기간 : 26년 2월 16일~24일













팀원들의 간증을 통해 영국 현지의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올네이션스 교회에서의 주일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이혼한 분들이 위로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교양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에게 팀원들의 간증이 큰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되었습니다.

케냐

- 선 교 사 : 박찬수
- 활동기간 : 26년 2월 16일~25일
















열악한 아프리카 땅에서 큐티사역을 진심으로 사모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 케냐 목회자 100명을 모시고 큐티세미나 사역, 현지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과 큐티세미나를 하고, 마시이족 교회를 방문하여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땅에 큐티인을 전하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케냐의 공립학교에 큐티인이 정식과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 2026년 1차 |

그리스

- 선 교 사 : 양용태
- 활동기간 : 26년 2월 16일~25일





















그리스에서 열방교회를 통해 난민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따라 난민들을 만나 큐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간증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국으로 흩어진 난민들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었고, 농장 사역을 통해 오렌지와 올리브를 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사역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는 TT였습니다.

호주(브리즈번)

- 선 교 사 : 김영수
- 활동기간 : 26년 2월 17일~24일














브리즈번한인교회는 이미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계셔서 우리들교회 TT팀이 방문하여 큐티사역을 하는것에 거부감이 없고, 브리즈번한인교회의 청년들과 우리들교회팀이 힘을 모아 원주민 사역과 어린이 사역, 노방전도 사역 등을 통해 구속사의 복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 2026년 1차 |

일본(교토)

- 선 교 사 : 김선식
- 활동기간 : 26년 3월 19일~24일













일본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지역 전도를 위해 교회 가든에서 한식을 준비하여 가든레스토랑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한국음식을 나누며 초정받고 오신 성도님께 팀원들의 간증과 찬양으로 섬기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큐티인으로 목장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하시며 사모함이 많으셨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일본 땅에 잘 뿌리내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필리핀(세부)

- 선 교 사 : 김효영
- 활동기간 : 26년 2월 9일~14일











필리핀 빈민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어린이, 미혼모들을 돕고, 현지 4개의 교회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보며 우리들교회 청소년 THINK TRIP팀원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어린이 사역과 간증을 나누고, 무언극과 선물을 나누며 함께 기쁨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2026년 1차 |

필리핀(보홀)

- 선 교 사 : 김사라
- 활동기간 : 26년 2월 5일~9일
















우리들교회 취학부 아이들과 현지 어린이들과 큐티사역을 통해 간증과 나눔과 게임 등으로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리니 구속사의 말씀이 더 잘 전해져서 함께 감동과 은혜가 있는 THINK TRIP이었습니다.

| 2026년 2차 |

일본(사이타마시)

- 선 교 사 : 강태영
- 활동기간 : 6월 22일~27일





















일본 사이타마감사그리스도교회에서 TT사역이 진행되었는데, 새벽예배 간증 사역, 노인복지시설 방문 찬양 및 간증 사역, 현지인 성도 및 전도대상자 초청 식사대접 사역 등, 귀한 사역을 통해 구속사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일본성도님들도 우리들교회 팀원들의 간증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 2026년 2차 |

일본(도쿄)

- 선 교 사 : 윤재경
- 활동기간 : 7월 13일~18일












팀원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선교사님께서도 큐티에 관심을 보이시며 큰 은혜를 받으셔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새신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팀원들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함께 기쁘고 은혜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일본에서 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푸네)

- 선 교 사 : L선교사
- 활동기간 : 7월 13일~22일

























인도 서쪽의 푸네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슬럼가의 아이들을 만나 큐티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 동안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팀원들이 아이들 한명 한명을 안고 기도를 해주며 축복해주는 시간은 너무나 큰 감동이되었습니다. 인도 땅에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혜롭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TT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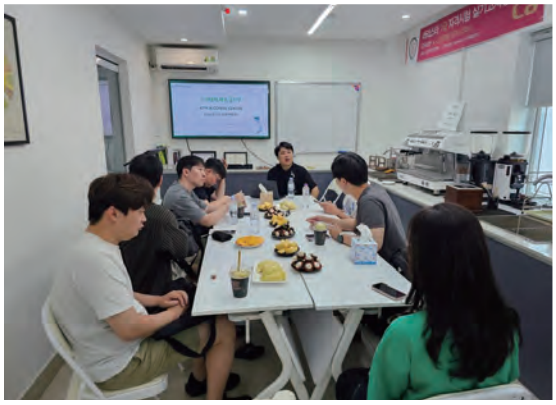
| 2026년 2차 |

베트남(하노이)

- 선 교 사 : 김영민
- 활동기간 : 7월 16일~21일






하노인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 사역과 신학교사역, 현지인 사역 등을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간증과 나눔을 큐티 말씀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현지 성도님들께서도 TT팀원들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셨고, 어린이들도 말씀으로 즐겁게 뛰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누는 은혜로운 TT였습니다.

튀르키예 큐페

- 선 교 사 : 선교사대회
- 활동기간 : 7월 20일~25일











튀르키예 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과 우리들교회 MK사역팀이 은혜로운 큐티페스티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MK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들도 서로 나누고, 각자의 약재료로 함께 울고 웃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2026년 2차 |

탄자니아

- 선 교 사 : K선교사
- 활동기간 : 8월 3일~12일














잔지바르섬은 무슬림 인구가 많아서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었는데,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1명이 세례를 받기로 계획이 되었으나 세례 받는 당일에 총 1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통해 큐티를 전하는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보며 큐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지바시)

- 선 교 사 : 민신기
- 활동기간 : 8월 17일~22일














현지에서 캠퍼스 전도사역과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사역 등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10명 중 1명만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치바대학교 대학생 3명이 TT팀원 전도로 교회를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팀원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한 성도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THINK 목회세미나

지난 8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 동안 대구성명교회에서 첫 '대구 THINK 목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상도와 그 외 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약 350여 명이 함께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큐티목회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성명교회 배준현 담임목사님

세미나는 김양재 담임목사님의 간증과 구속사적 말씀묵상 강의를 중심으로, 목장 시연, 패널토의, 간증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며 구속사적 큐티목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미나 기간 동안 이어진 저녁 말씀집회에는 약 700명이 함께해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동안 진행된 '경상도 THINK TRIP'으로 지역 교회를 찾아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뿌렸던 씨앗이 '대구 THINK 목회세미나'라는 자리에서 실제적인 참여와 열매로 나타나 더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의하시는 담임목사님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영광이 한 단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속사의 관점이 아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지나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내 뜻대로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가장 유익한 인생임을 전했습니다.


강의시간


찬양하는 참석자들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친 수요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되었으며, 대표 수료자로는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담임목사가 참석자들을 대표해 수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THINK 목회세미나에서 만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창영락교회 김대현 담임목사

목회자로서 큐티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세를 통해 구속사적인 말씀이 들리고, 삶이 해석되는 사건이 생기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들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큐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목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성일교회 최재호 담임목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큐티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목회자로서 큐티목회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성장 과정과 환경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큐티목회를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잘 녹여 내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도제목이자 비전입니다.

서문교회 소문수 담임목사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본질을 향한 갈증이 채워지며 큰 은혜와 함께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역을 이어오면서 그 은혜가 점점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말씀의 자유를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다시 뛰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구 THINK 목회세미나를 통해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 한 사람,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THINK TRIP'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많은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섬김이 지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교회 선교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Instagram @wooridle_mission

YouTube @wooridlemissionary
"우리들교회 선교국"





전 세계 어디서나 TT 소식을 한 눈에!
우리들교회 주일 2부 예배
"영어 통역 서비스" 스트리밍 진행!

여러분!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큐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FROM THE RIVER TO THE OCEAN

우리들교회 선교국